

반도체 · LCD 1위에 올랐으나...

무역협회, 특정산업 세계 수위로 선도 ... 투명성 · 경쟁력은 문제

한국은 D램 반도체, TFT-LCD 등 주요 산업부문에서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제경쟁력, 투명성 등에서는 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가 11월14일 발표한 <경제·무역·사회 지표로 본 대한민국>에 따르면, 한국은 D램 반도체 매출액, TFT-LCD 출하량, 선박 수주량,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 등에서 2004년 1위를 차지했다.

또 2004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11위, 교역규모 12위, 조강 생산량 5위, 부산항 컨테이너처리실적 5위, 2003년 화섬 생산량 4위, 에틸렌 생산능력 5위, 자동차 생산 6위, 1971-2003년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 4위를 차지했다.

2005년 3월 기준으로는 휴대폰 판매량 3위, 2003년에는 석유 소비량 8위(2003), 전력 생산량 11위에 올랐다.

그리고 2004년 국제회의 개최건수 10위, 전자정부 지수 5위, 2005년 현재 글로벌화에 대한 태도 6위, 포천지 세계 500대기업 9위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5년 국제경영개발원(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52개국 중 27위(2005), 투명성 지수는 52개국 중 29위, 경제자유도는 2003년 35위, 유엔인간개발지수는 28위, 유엔여성개발지수는 27위, 그리고 2005년 고급두뇌 유출은 32위, 여성 국회의원수는 86위에 불과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한국은 특정산업에서는 세계 수위를 달리고 있고 많은 경제분야에서 선도국가군에 속하고 있지만 사회의 투명성과 경쟁력, 경제자유도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는 아직까지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화학저널 2005/11/15>